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2020.3.19.(목) 14:00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모 두 말 씀

2020. 3. 19.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 명 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입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신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이지만,
2,300만대의 자동차를 갖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로써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는지,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를
늘 살피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간 음주운전 사고시에도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이나,
사고시 진료비 또는 입원비의
지급기준이 미비한 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금번 개선방안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어
자동차 보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만,

* ('18) 346명 → ('19) 295명 / △14.7%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고부담금을 음주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 (현행)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 (개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이러한 조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자동차 사고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그 효과가 일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